별 별 신 문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창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창간호 발행일자: 2011년 7월 8일 금요일 발행인: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팀(깡, 달, 숨, 쌀, 용)

'방석집', '색시집', '까페', '찻집', '짝집', '꽃마차', '맥양집', '오비집'…
맥양주집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찾아가다!

화곡동 곰달래길은 대표적인 맥양주집이 군락을 이루는 곳으로 100여개가 넘는 업소가 다양한 이름을 걸어놓고 성업 중이다. 화곡동뿐 아니라 아현동, 성내동, 중곡동, 서강로 등 동네 구석구석에 삼삼오오 아니면 10여개 업소가 모여서 동네풍경이 되어 있는 맥양주집에는 어떤 사연들이 모여 있을까? 보통 '방석집', '색시집', '까페', '찻집', '짝집', '꽃마차', '맥양집', '오비집'으로 불리며 그 명칭만큼이나 다채로운 일들이 하루의 영업시간동안 일어난다.

희(喜) '허가'가 주는 안도감

지난 4월부터 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서는 시위가 한창이다. 타임스퀘어라는 거대자본을 가진 쇼핑몰과 생색내기 좋아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구의회 의원등의 정치인들, 노른자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보려는 개발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영등포경찰서는 집결지 출입구를 경찰차로 막아서 사람들(성구매자)의 출입을 통제했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여성들과 업주들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찰단속은 이리도 위협적인데, 영업형태만 다를뿐 일반적으로 2차가 이어지는 맥양주집은 상대적으로 단속을 비켜갈 수 있는 것은 왜일까?

집결지의 업소들이 무허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맥양주집은 보통 일반음식점이나 주점으로 허가를 받는다. 일반음식점과 주점은 둘 다 술을 팔 수 있는데 일반음식점은 아가씨를 고용할 수 없고, 주점은 아가씨를 고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단속에 걸린다면 소방 설비 미비로 인한 소방법 위반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아가씨를 고용했을 경우, 영업외 불법성매매가 신고되었을 경우이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업주뿐 아니라 일하는 여성에게 단속 때문에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준다. 합법적으로 술을 파는 영업시간외의 2차에 대하여는 아가씨와 손님간의 일로 치부되어 영업장 밖의 일이 되는데 그 대신 영업장안에서 양주나 짝으로 판매되는 맥주등의 주류판매에 더 신경 써서 수입을 올려야 한다. 2차 수입에 대하여 보통의 경우 업주는 상관하지 않지만 업소에 따라 업주와 수입을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수많은 이름을 가진 업소 수만큼이나 영업방식 또한 다양하다.

노(怒) 이런 저질, 저런 저질

강남의 으리으리한 룸살롱의 규모에 비할 바 못되지만 '서민들의 룸살롱'이라 불리며 지역마다 삼삼오오 모여 있는 맥양주집에는 별별 손님들이 방문한다.보통 교통이 편리한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지리적 편의성이 확보된 곳에서 익명성을 담보로 온갖 인간군상이 모여든다.

"이런 사람도 있어. 양복 쫙 빼입고 007 가방을 들고 와.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돈이 없고, 무슨 신고를 해. 나는 그냥 보내요." B(서강로 유흥주점)

「아현,염리 일대 공간 구성의 요소와 도시적 기능」

양복을 차려 입고 호기롭게 술을 마시지만 막상 돈 없다고 쌩까는 저질!(제길!)

맥주 세병에 기본안주, 저렴한 삼만원짜리 셋트메뉴도 비싸다고 투덜거리는 저질!(제길!)

술 마시는 집인데 술은 안마시고 다짜고짜 연애(성매매)하자고 덤벼드는 저질!(제길!)

동네 구석구석에서 네온사인이 반짝이지만 오히려 동네주민 보다는 외지인 이용이 높은 맥양주집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저질들을 상대하다 보면 속으로 이런 제길!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삼만원짜리 기본세트부터 한 짝 20만원, 긴밤 몇 십만원까지 급수도 다양한 맥양주집의 하루는 녹록치 않다. 하룻밤 술값만 몇백만원 한다는 강남 룸살롱에도 이런 진상이 차고 넘쳤다고 하니, 화딱지 나는 하루는 어떤 업소라도 마찬가지인걸까.

애(哀) 이런 체질, 저런 체질

성매매방지법 이후로 청량리, 영등포, 용산, 파주 등 일하는 여성들의 나이대는 지역마다 다른데 20대부의 집창촌에서 단속을 피해 젊은 여성들이 맥양주집으로 들어와서 물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일부 일뿐이라고 한다.터 5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각기 다른 지역의 맥양주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집창촌, 티켓다방, 안마, 룸, 키스방 등의 신종 업소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성매매 업소가 소위 사이즈와 나이를 따지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나이들면 그만둬야 하는 것에 비해서 동일한 업종을 업소와 지역만 바꿔 가면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맥양주집 일인 것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시는 술 때문에 몸도 힘들고, 진상짓 하는 손님들 때문에 진도 빠지지만 이만한 수입을 주는 다른 일이 없어 그만두더라도 다시 맥양주집을 찾는 아가씨도 많다고 한다.

시간을 끊어 연애만 이뤄지는 집창촌에 비해 맥양주집에서는 영업시간 내내 대화와 함께 술을 팔아야 한다. 짝으로 들어온 맥주는 마시든지 안마시든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아가씨는 끊임없이 손님이 술을 마시도록 분위기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도 술을 계속 마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쉽게 나빠지고 술이 안 받으면 오래 일하기 힘든 곳이 맥양주집이다. 연애하는 체질, 술 마시는 체질이 따로 있어서 맥양주집 일하는 아가씨는 맥양주집으로만 돌고, 집창촌에서 일하는 아가씨는 집창촌으로만 돈다는 게 일하는 여성들의 체질구분인데 듣기엔 제법 솔깃한 이야기이다.

"작년 여름에 저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얘기할 때, 딱 오는 겨울까지만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그 해 초에 딱 여름까지만 하자, 그랬는데 지금 또 있는 거고. 8월 되면 또 손님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있을까 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좀 괜찮겠구나 했는데. 아직 있어요."C 굴레방 다리 밑 유흥주점

「아현,염리 일대 공간 구성의 요소와 도시적 기능」

락(樂)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나들기 반복하면서도 숱하게 많은 맥양주집에 있는 업주와 아가씨들은 보통 업소와 가까운 지역에서 주민으로 살면서 맥양주집으로 출퇴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볼 수 없었던 굳게 닫힌 문과 조명 너머에서는 이렇게 하룻밤에도 웃다 우는 희노애락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

이 글을 적으며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를 맥양주집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이용하는 남성들도 아니고, 하루하루를 울고 웃으며 삶을 지속시키고 있는 여성들일 것이다. 그 안에서 부대끼는 사람들과의 정(情), 꾸준한 일터로 생계를 지속시켜주는 일, 세상의 색안경과 맞서 대항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무엇이 있든지 말이다.

[깡]

별별신문을 이용하세요~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소식, 성매매 관련 소식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겪으신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시거나 부조리한 사건들을 고발해 주십시오.

고발, 사연 보낼 곳
E-mail: eloom2003@nav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12 5층 "별별신문"담당자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게 주소나 직접 받기 편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별별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문자신청: 010.8230.6279

특집. 도시재개발과 성매매

도시재개발,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분노와 불안

영등포를 비롯한 전국에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시위가 한창이다.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성매매집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대책이 막막한 여성들의 저항이 5월 한달 내내 계속되었다. 현재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은 "도시재개발"과 단속이다. 성매매집결지 도시재개발 계획은 그녀들에 대한 한 가락의 지원정책이 전무한 채로, 그 공간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핑크빛 전망만을 약속하며 선언되고 있다. 누적된 위기의식과 함께 갑작스럽게 시작된 단속으로 여성들의 분노와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요구사항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한터'와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을 중심으로 모인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은 △생계대책 마련 △3년간 단속 유예기간 약속 △이주대책 마련 △현실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여성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판매가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여성들에게 있어 이러한 요구들은 재개발과 단속으로 생계수단이 막막해진 상태에서 사회적 출구를 찾기 위한 절실한 저항이며 몸부림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이 반드시 "성매매를 지속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로만 해석되는 것은 성매매 업주들과의 이익과 맞닿아 있어 문제적이다. 이미 많은 보도 자료에서 여성들은 인터뷰를 통해 "이 일을 (성매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

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도 함께 쏟아내고 있지만, 아무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사회,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여성노동의 대안으로서 성매매가 존재하는 문제적인 사회를 꼬집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눈 돌리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에게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자유로운 이동과 다른 방식의 생계수단의 쟁취는 불가능한 허상일 뿐인가. 2011년, 다시 터져 나오는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전업지원 정책"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지난 3~4년간 '부족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여성단체를 못 믿겠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하는 방식으로라도 여성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년의 단속 유예기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의 요구 중 가장 핵심 사안은 3년의 단속 유예기간을 약속하는 것이다. 3년의 단속 유예기간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이번 시위에 앞장 서 있는 여성들보다 더 이익을 취하게 될 주체들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바로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끊임없이 지역과 업종을 변화시킨다. 3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면 여성들은 안정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게 될까. 3년 전 폐쇄 반대를 외치던 여성들이 같은 집결지에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오히려 여성들은 끊임없이 지역과 업종을 변화시키면서 매우 유동적인 성노동자성을 구축하며, 각지에 포진되어 있는 여성단체와 성노동자 단체를 오가면서 삶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경찰단속을 피해, 장사가 더 잘 되는 지역을 찾아, 또는 업주나 사채업자로부터 도망다니거나,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고자 지속적으로 익명적 공간을 찾아 지역을 빈번하게 옮겨다닌다. 예를 들면, 평택에서 매달 〈민성노련〉 노조 회원비를 납부하던 여성이 몇 개월 사이에 다른 성매매 집결지에서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소위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사채업자에 쫓겨 A라는 지역에서 법률상담을 받았던 여성이 몇 개월 후 같은 방식으로 B지역의 단체와 연대한다. 성매매 여성이 무소속이면서 익명적 지대에 있다는 특성이 활용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성매매집결지는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임시적인 시간과 장소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많은 보도 자료에서 여성들은 인터뷰를 통해 "이 일을 (성매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도 함께 쏟아내고 있지만, 아무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들이 성매매가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사회,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여성노동의 대안으로서 성매매가 존재하는 문제적인 사회를 꼬집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에 눈 돌리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에게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자유로운 이동과 다른 방식의 생계수단의 쟁취는 불가능한 허상일 뿐인가.

물론 이동하는 여성들과 달리 영등포나 청량리와 같은 성매매집결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여성들에게 있어 도시재개발이 터전을 잃게 만드는 계기인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단속 유예기간 동안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누리면서 삶을 보장받는 이들은 그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성매매 업주들이다. 3년 단속유예가 여성들보다는 업주들에게 더욱 절실한 이유다. 게다가 단속으로 인해 여성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의 목을 조여 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빚과 고액의 월세 장사를 고안해 낸 업주들의 횡포가 크다. 업주들은 성매매방지법의 약점과 성매매 여성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면 자연스럽게 그들 자신의 이익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안정적인 전업을 방해했던 업주집단이 지금은 마치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면서, 성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아주려는 것처럼 보이면서 '성노동자 운동'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업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시위를 통해 가장 이익을 얻는 또 다른 주체인 성매매 업주의 이해관계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업주들은 '성산업인'이라는 전제로 여성들과 자신들을 협력관계로 상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업주들에게 있어 3년 단속기간의 유예는 자신들의 이익창출 통로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보겠다는 의도가 크다.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반발과 성매매 여성의 요구사항은 분리되어야 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의 생존권과 여성에 대한 위협은 오히려 성매매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이익이 극대화될 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재에도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성매매만이 여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적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여성들과 업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들의 위치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다른 방식의 생계수단으로의 자유로운 이동,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로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쌀]

"집창촌 개발을 환영하는 사람들?"

동대문구 주민들이 집창촌 개발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곳이 삶의 터전이었던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아주 간단히 삭제된다.

개발 때문에 쫓겨나는, 소외된 이들의 슬픔은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쌀]

특집. 도시재개발과 성매매

"영등포 시위를 바라보는 언니들의 거침없는 말! 말! 말!"

5월 한달 내내 계속되었던 영등포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를 바라보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몇몇 여성들의 의견과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영등포 시위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아무런 생계대책 없이 쫓겨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라는 점에서 공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성매매 여성들의 "단결성"을 인상적으로 보면서, "여성들이 끊임없이 업종과 지역을 변경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맞지만, 영등포라는 공간이 터전인 사람들 또는 그곳이 인생의 마지막 거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영등포를 떠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성매매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한 여성은 성매매가 사회의 성범죄를 예방해준다는 이야기로 성매매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하고, 한 지역을 정해놓고 성매매를 허가하는 공창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정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 놓고 성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이전에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다 키스방으로 업종을 변경해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은, 영등포 시위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묻자, "나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업주들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사회가 나를 단속하고 몰아내려고만 하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영등포 여성들의 시위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업주와 손님들 사이의 진상짓을 참아가며 일하느니 지금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이 업종에서 벗어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여성은, 성매매업소가 몰려있는 집결지에서는 한 업소에서 10년 또는 11년씩 오래 일하는 아가씨일수록 업주와의 의리와 관계를 외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빚이 생기거나 돈이 거래되는 현실에서 기본적으로 업주와의 관계에서는 불평등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성매매방지법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또 이 여성은, 영등포 시위에서 성매매방지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등포 아가씨들이 성매매방지법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를 묻자, 자신도 단속이 싫었지만, 단속을 당해도 여성들은 참고인 조사만 받으면 되지만 업주들은 영업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이 여성들에게 있어 업주들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망이 되어준다고 답했다. 업주나 손님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매너 없이 행동할 때, 이 여성은 "언제라도 법에 호소할 것"을 계획하거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 때 자신이 호소할 수 있는 법이 성매매방지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방지법이 어떤 현실에서는 업주나 손님들에 대해서 성매매 여성들의 방어권을 높여준다는 점을 꼬집고 있는 것이며, 단속의 이면에 여성들의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의 효과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매매방지법이 여성을 모두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는 범죄자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으로 보인다.

[쌀]

성매매방지법, 제 점수는요!

업소를 단속하고 일 못하게 하는 주범으로 단골로 꼽히는 성매매방지법, 언니들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성매매방지법은 언니들과 상관없는 쓸모없는 법일까요? 아니면 언니들을 위한 만사형통 법일까요? 뭐든지 알아야 힘이 되는 법!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에기스만 쪽쪽 뽑아보아요.

질문내용을 읽고 그렇다와 아니다 중에 선택해보세요. **정답과 결과는 ☞ 8면으로…**

질 문	그렇다	아니다
윽~ 긁적긁적 곤지름 때문에 괴로운데 치료지원이 되나?		
선불금 사기라고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혼자 가긴 무섭고, 믿을만한 누가 같이 가 줄 수 있을까?		
일수 찍는 거 밀렸다고 사채업자가 가족들에게 일하는 거 알린다고 협박하는데, 성매매 방지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일 그만두고 딱히 갈 데가 없는데 안정적으로 지낼 곳이 있을까?		
여성단체 통해서 이런저런 도움 받고 싶은데, 비밀보장은 될까?		
형편이 안 되는데 선불금(마이킹) 명목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거 아닐까?		
슬슬 나이도 먹어가고 다른 것 배워서 써먹어보고 싶은데 될까?		
숨기고 싶은 내 일을 누군가 소문을 내고 다니네. 괘씸한데 성매매 방지법에서 못하게 할 수 있나?		
쉼터로 가는 것은 싫은데,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할까?		
질질 시간 끌고 못 갔다고(사정) 돈 내놓으라는 진상손님이 성매매로 신고한다는데 나만 처벌받을까?		

[외부기고글]

재개발로 추방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투쟁과 밥, 구로] http://twitter.com/riotguro

201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는 영등포 타임스퀘어내의 오피스 B동에서 파견직으로 일을 했었다. 내게 있어 타임스퀘어는 매우 이상한 공간이었다. 마치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무언가를 가로막는 듯했다. '오시는 길'을 찾으러 타임스퀘어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지하철 1호선에서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해서 오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지도에서는 '멋스런 정문' 외에는 들어가는 문이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면접을 보러 타임스퀘어에 도착을 하고 나서야, '이상한 지도'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오피스 B동 건물과 백화점 건물이 성매매집결지와 길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영등포 성노동자 투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신세계 백화점에서부터 오피스 빌딩까지 이르는 길은 항상 신사복을 입은 경비업체 직원들이 10~15미터에 한명씩 서서 타임스퀘어를 이용하는 고객의 발길을 돌리는 일을 했었다. 길이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스퀘어 내의 직원들도 출근길, 퇴근길, 외식을 하러 밖으로 나가야 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한참을 돌아가야 했다.

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등포 성노동자 투쟁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듣게 되었다. 기사를 찾아 읽으면서 통쾌한 기분을 느꼈다. 나도 성매매집결지를 애써 보지 않으려는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을 깨고 싶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집결지 단속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마치 영등포 도시 재개발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핑계거리 같다. 전여옥 국회의원(영등포 지역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임스퀘어 주변 도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 주변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가 인근지역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주변 환경 정리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그곳의 여성들을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추방해야 할 무엇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 듯하다. 그곳의 사람들도 함께 누려야 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도시 환경개선"의 이유로 박탈되고 만다.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재개발로 내몰리는 고된 현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자, 성노동자 투쟁은 각지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었다. 국회 앞 단식 및 농성을 비롯하여, 각종 집회와 현장투쟁이 있었다. 7년이 지난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2011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여성들의 시위는,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재개발로 인해 내몰리는 이중의 고된 현실과 맞서는 투쟁이다. 그것이 도시개발로 인해 자신이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내기 힘든 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발판삼아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들의 투쟁을 지지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이다.

도시에서의 재개발 문제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6월초에 홍대 두리반 투쟁이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되었다. 531일간의 농성 끝에 얻어낸 뜻 깊은 승리이다. 두리반의 승리는 도시재개발 문제에서 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철거민의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두리반은 승리하였지만, 서울에서만 300개가 넘는 곳이 재개발 대상지역이 남아 있다. 이사를 하더라도 또 다시 재개발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지난주부터 점거농성이 시작된 명동지역 상가세입자들의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시행사에서 고용한 철거깡패 용역들이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오함마를 들고 물건들을 부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며칠째 명동철거현장에서 함께 농성하며 연대하면서, 길 하나를 두고 편견과 사회적 낙인에 맞서 투쟁하는 영등포 성노동자의 모습이 겹쳐졌다. 고층빌딩의 화려한 명동에서 철거를 강요받는 철거민의 현실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가려진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현실은, 아무 대책 없이 추방당하는 도시민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누구도 그들을 쫓아낼 권리는 없다. 도시개발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한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

1번(Magic)-이집트 풍요의 여신 이시스(Isis)
'최고의 여왕'이라는 뜻의 이시스는 남편인 오시리스와의 사랑을 질투한 세트에 의해 오시리스가 죽임을 당하고 14조각으로 시신을 이집트 전역에 버렸을 때 조각난 오시리스의 몸을 찾아 집요하게 찾아 부활시킨 강력한 여신이에요. 이시스를 영혼카드로 만난 당신은 어떠한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창조력과 힘을 믿고 용기를 낸다면 어떠한 한계라도 초월하여 성장할 수 있어요. 올해의 성장카드로 이시스를 만났다면, 나 자신을 믿고 단호하게 결단한 바를 실행하는 한 해를 만드세요. 강력한 여신 이시스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2번(Wisdom)-힌두의 지혜의 여신 사라스바티(Sarasvati)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사라스바티 여신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지식과 학문의 화신으로 예술과 문화를 주관하는 멋진 여신이에요. 그녀는 영혼의 지혜를 상징하지요. 사라스바티가 영혼카드라면 당신은 지식과 예술, 풍류에 관심이 많은 다재다능한 사람! 많은 것들을 열망하지만 버거운 것이 아니라 여신이 가진 여러 개의 손에 의해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사라스바티가 올해의 성장카드라면 창조적이고 부지런한 열망과 노력으로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 보세요. 새로운 발견과 도움을 주는 스승을 만나거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3번(Fertility)-나바호의 옥수수여신 에스챠나틀레히(Estsanatlehi)
이 여신은 항상 변화하고, 항상 풍요로운 대지를 상징해요. 이 여신을 영혼 카드로 만난 당신은 사막의 선인장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과 따듯함을 가진 사람!
넉넉한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멋진 여성이에요. 올해 이 여신을 성장카드로 만났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안정과 풍요를 느끼는 지 생각해보고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찾아보는 한 해를 만들어 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에스챠나틀레히 여신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4번(Power)-노르웨이의 미와 창조성의 여신 프레야(Freyja)
두 마리의 고양이가 끄는 마차를 타고 바람보다 빠르게 달리는 강력한 여신이에요.
프레야를 영혼카드로 만난 당신은 지도력과 지혜, 권위를 타고난 프레야의 힘을 영혼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지혜롭게 쓰는 능력, 타인을 이끌어 가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한다면 금상첨화! 올해의 성장카드가 프레야 여신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소심하게 고민하지 말고 힘차게 돌진해서 해결해 보세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를 찾아 힘을 얻는다면 프레야 여신처럼 용감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에요.

5번(Tradition)-로마 통치의 여신 주노(Juno)
로마신화의 대모신 주노여신은 여성의 삶에서 결혼을 비롯한 전통적 의식의 보호자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주노 여신을 영혼카드로 간직한 당신은 사회 구조와 전통을 따르고 애정관계나 결혼에 대한 욕망, 안정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안정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노 여신을 성장카드로 만났다면 전통에 순응할 것인지, 새롭게 개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찾아올 때 주노 여신처럼 신중하게 생각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세요.

6번(Love)-로마 사랑의 여신 비너스(Venus)
사랑의 여신 비너스는 신과 인간, 모든 생명체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여신입니다. 비너스를 영혼에 간직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기운 나게 하며, 타고난 매력, 뜨거운 열정으로 주위에 사랑을 받는 멋진 여성! 하지만 사랑을 피주다가 상처를 받기 쉬울 수 있어요. 비너스를 성장카드로 만났다면, 올해는 비너스 여신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네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추는 한 해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7번(Movement)-켈틱 말의 여신 리아논(Rhiannon)
말을 타고 달리는 여신 리아논은 움직임의 긍정적 결말을 상징하고 인생의 다음 국면으로 이동함을 뜻해요.
리아논을 영혼카드로 만난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활력과 생명력을 영혼에 간직하고 있는 멋진 여성입니다. 올해의 성장카드로 리아논을 만났다면 지금까지 망설이고만 있었던, 늘 고민해 왔던, 어떤 일을 올해 실행에 옮겨보세요. 리아논 여신이 가진 운명과 행운의 힘으로 변화가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적절한 기회가 당신을 찾아 올 거예요.

8번(Justice)-그리스 지혜의 여신 아테네(Athene)
아테네는 뛰어난 이성으로 사물을 꿰뚫는 능력을 가진 강력한 여신이에요. 엄청 씩씩하고 용감해서 정의로운 전쟁의 여신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아테네 여신을 영혼에 간직한 당신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강인하고 용감한 여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믿어보세요. 아테네를 올해의 성장카드로 만났다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 정의롭고 공정한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아테네여신의 도움을 받아 용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9번(Contemplation)-중국 달의 여신 창오(Chang O)
달의 여신인 창오는 남편의 잘못으로 인간세계로 쫓겨 났지만 불사의 약을 얻어 스스로 여신이 된 자분하지만 강인한 여신이에요. 창오를 영혼카드로 만난 당신은 왁자지껄한 상황보다는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는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의 성장카드가 창오라면 시끄러운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두지 말고, 당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생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때입니다.

내안의 여신에게 말걸기

요즘 길거리에 사주/관상집 만큼이나 많이 생긴 '타로카드'점!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카드로 점을 본다는 데, 과연 신통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타로카드는 고대의 비밀스런 지혜를 담아 예언의 도구, 명상의 도구로 만들어 졌다고 해요. 세상에는
수 백가지 종류에 타로 카드가 있지만, 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단한 삶에 조언을 해주는
여신타로를 이용해서 내 안에 숨겨진 힘을 알려주는 '영혼카드',
올 한해 나에게 필요한 힘을 알려주는 '성장카드'를 찾아보세요.

내 안에 숨겨진 22명의 여신의 모습을 찾아서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마다
용기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어 봅시다!

내 안에 숨겨진 여신의 힘, 영혼카드 찾기

- 계산하는 법 : 자신이 태어난 년도의 양력 생년월일로 계산한다.(예. 1980년 12월 22일생)

1 9 8 0
1 2
\+ 2 2
2+ 0+ 1+ 4 **(7번카드가 영혼의 카드/영혼의 카드는 한자리 숫자가 나오도록 한다.)**

가령 2|7|9|4=22→2+2=4(4번카드가 영혼의 카드)

2011년 나에게 필요한 여신의 힘, 성장카드 찾기

- 계산하는 법 : 자신이 태어난 년도가 아닌 올해 년도와 양력 생년월일로 계산한다.

2 0 1 1
1 2
\+ 2 2
2+ 0+ 4+ 5 **(11번카드가 성장의 카드/성장의 카드는 21이 넘으면 두 숫자를 더한다.)**

성장카드는 다음햇수에는 올해 성장카드 다음카드가 해당된다.
(올해 성장카드 11번, 2012년에는 12번, 2013에는 13번카드로 계속 순환한다.)

21번(The World)-지구를 상징하는 그리스여신 가이아(Gaia)
고대 그리스의 대지의 여신으로 태초의 혼돈속에서 탄생한 창조의 생명체 가이아 여신을 올해의 성장카드로 만났다면 2011년은 확장과 희망에 대한 새로운 느낌, 희망, 여행과 소통을 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영감과 희망을 보장하는 한해가 될 거에요. 오랫동안 노력했던 일이 좋은 결실을 맺거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일이 드디어 끝나서 보람과 후련함을 느낄 수 있어요. 더 나은 직업으로의 확장이나 여행등의 변화를 통하기도 하니까 가이아 여신의 보호를

10번(Fortune)-행운과 번영의 힌두 여신 락슈미(Lakshmi)
락슈미는 온갖 반짝이는 부의 보석들을 반짝이며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부와 행운을 나눠주는 번영의 여신이에요. 당신의 성장카드가 락슈미라면! 행운과 번영을 누릴 운명이 온다는 뜻! 당신은 번영과 확장, 기회를 잡는 힘, 풍요로움을 향해 열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풍요와 번영을 위한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락슈미 여신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1번(Strength)-니제르강과 바람의 여신 오야(Oya)
폭풍을 관장하는 여신 오야는 여성적인 리더십과 강함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오야 여신을 올해의 성장카드로 만났다면 당신이 가진 엄청난 내적인 힘을 자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답답한 사람도 설득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불화를 해결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힘을 써보세요. 힘든 일이 생겨도 강력한 오야 여신의 도움으로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12번(Sacrifice)-중국 자비의 여신 관인(관세음보살Kuan Yin)
관세음보살은 생전의 선행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극락에 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승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비의 여신이에요. 올해의 성장카드로 관세음보살을 만났다면 올 한해 주변을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 보세요. 하지만 금전적인 도움을 마구마구 퍼주는 것은 곤란해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주변에 베푸는 넉넉한 한 해를 만들어보세요.

13번(Transformation)-일본 음식의 여신 우케모치(Ukemochi)
우케모치 여신은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그녀의 몸을 변화시켜 죽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한 여신이에요. 우케모치 여신은, '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끝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를 말해주고 있어요. 올해의 성장카드로 우케모치 여신을 만났다면 올해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힘든 변화 끝에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변화의 과정을 용감하게 이겨내야 겠지요. 삶을 변형시키고 성숙하게 할 꼭 필요한 변화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멋진 시작을 만들어야 할 때!

14번(Balance)-카리브 해안의 바다의 여왕 예마나(Yemana)
예마나 여신은 생명을 낳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생의 모든 것을 보살피는 물을 제공합니다. 이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말하며, 사람들 사이의 평화, 조화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예마나 여신을 올해의 성장카드로 만났다면 영혼과 육체를 조화롭게 하고 관계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건강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던가, 바쁘게 사느라고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면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에요.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 관계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를 위한 시간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15번(Temptation)-자바인의 물의 여신 냐이로로키둘(Nyai Loro Kidul)
태평양의 푸른 파도 톰새에서 매혹적인 인어로 존재하는 여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결점들, 취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하게 성장하라는 메세지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해 동안 내적인 혼란, 강박관념 등의 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한 유혹, 탐닉이나 질투를 겪을 수 있어요.
심란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는 각자의 영혼카드 속 여신을 생각하며 힘차게 헤쳐 나가도록 해요.
힘내세요!

16번(Oppression)-오스트레일리아 풍요의 여신들 와왈락자매(The Wawalak sister)
와왈락 자매는 무지개 뱀에게 통째로 잡아 먹혀서 뱀의 뱃속에서 어둠에 압도된 와왈락은 빛을 향해 다시 태어날 때까지 울고 있는 여신이에요. 올해의 성장카드로 와왈락 여신을 만났다면 올 한해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하고 씩씩하게 견디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뱀의 뱃속에서 울고 있지만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의 희망이 있으니 주의 상황이나 감정에 의해 압도되고 억압받는 느낌, 우울증에 처하더라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살 견디면 내년에는 이난나 여신이 당신을 희망으로 인도할 거예요. 힘을 내세요!

17번(The Star)-별과 하늘의 수메르 여신 이난나(Inanna)
이난나는 달의 순환과 이 세계의 변환을 주관하며 대모신으로 생명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멋진 여신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을 꿈을 따르라. 꿈을 현실로 이루는데 주저하지 말라. 성공, 행운, 창조력, 자기존중, 행복과 환희를 가져오는 힘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반짝이는 별빛처럼 당신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더 많은 도움들이 당신을 향해 있으니 잘 찾아 보시구요.

18번(The Moon)-로마 달의 여신 다이아나(Diana)
다이아나는 달의 여신이자, 사냥의 여신이에요. 변화무쌍한 달처럼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성장카드가 다이아나 여신이라면 강인한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와 같은 보살핌이 당신에게 찾아오고 여성들과의 관계가 풍요로워지는 한 해가 될 거에요. 주변에 당신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들과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한해를 만들어보세요.

19번(The Sun)-슬라브 수호의 3여신들 조르야(The Zorya)
조르야는 태양신을 돕는 세명의 자매 여신들로 매일 지구에 온기를 가져오기 위해 하늘의 전차를 몰고 오는 활기찬 태양의 여신이에요. 조르야를 올해의 성장카드로 만났다면 모든 활기차고 강력한 태양처럼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해쳐나갈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울함에 빠져있거나 기력이 없다면 조르야 여신의 긍정적인 에너지, 성공과 풍요의 힘을 기억해 내세요. 올 한해는 조르야 여신이 따듯하게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20번(Judgment)-켈틱 통치 여신 그웬화이파(Gwenhwyfar)
통치의 여신 그웬화이파는 판단력과 현명함을 상징해요. 올해의 성장카드로 그웬화이파 여신을 만났다면 올 한해 당신에게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일 이 찾아올 것 같네요. 삶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변화가 있을 때,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신이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결단을 내리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므로 이 카드는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해줍니다. 중요한 결정에 당신의 판단에 확신이 안 선다면, 여왕의 자신감과 함께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웬화이파의 힘을 믿고 씩씩하게 나아가세요!

한낮의 '우울'

최진실, 최진영, 박용하, 아나운서 송지선, 모델 김유리, 김다올..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잇달아 들린다. 이제는 연예인 자살 뿐 아니라 동반 자살까지, 뉴스에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틈도 없이 가장 먼저 우울증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라고 흔하게 말한다. 그들 중에는 오래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던 이도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이도 있고, 남몰래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이도 있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할 만큼 그들은 무엇이 힘들었을까. 섭게들 '우울하다' '우울증'을 말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무엇일까?

'나 우울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조금만 기분이 다운되어도 '우울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우울증의 증상은 감기처럼 슬며시 왔다 사라지는 것부터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만큼 무기력해지는 우울증까지 그 증상은 다양하다. 감기를 흔히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가벼운 우울은 잠시 앓다 금방 회복되어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그때는 그 증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단지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울한 때를 겪었을 뿐이다. 가벼운 우울은 이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아지거나 친구랑 수다를 떨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 괜찮아질 수 있다.
헌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성적인 우울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무기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내가 왜 사는지, 무기력하고 일상이 재미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느껴진다. 깜깜한 터널 속에 혼자 덩그라니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아무 것도 하기가 싫다.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기분이 내 맘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종종 자해나 자살시도를 하기도 한다. 머릿속에서 엉겨 있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기도 한다. 하지만 자해/자살, 음주 모두 우울증을 벗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받쳐 있던 감정은 술로 인해 더 격해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자해를 하고 나서는 내 몸에 박혀있는 상처를 보면서 자신이 약해 보이고 밉고 한심해 보인다. 그러면 다시 또 우울이 반복된다.

가까이 있는 우울,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우울증은 자각이 중요하다. 이러다 말겠거니 하다가 병을 키우게 된다.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애써 사람들에게 웃음 지어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다. 들키지 않으려고 밝게 살아보려고 애써보지만 이상하게도 노력은 하는데 하루도 채 가지 않는다. 이내 곧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휩쓸고, 그 감정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혼자서 자생적으로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의 우울증이 아닌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무겁게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나눠야 한다. 마음의 병은 많은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한 채 꾹꾹 쌓아두었던 것들이 이제는 한계 초과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쌓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야 한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수다를 통해 그때 그때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은 만성적인 우울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신과 의사와 상의하여 약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우울증 약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부작용으로 머리가 어지럽거나 토를 하거나 잠을 이룰 수 없는 등 부작용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바꾸는 것이 좋다.
상담하는 곳을 찾아서 심리상담가와 상담을 시작한다. 약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왜 우울증이 자신에게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

<우울증 체크리스트!>

1. 하루의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
2.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다
3. 체중조절을 하고 있지 않을 상태에서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식욕감소나 증가가 있다.
4. 거의 매일 잠을 못 자거나 또는 과다하게 잠을 많이 잔다.
5. 초조하거나 또는 처진 느낌이 든다.
6. 거의 매일 피로하거나 활력이 없다.
7. 거의 매일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낀다.
8.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감소한다.
9.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한다.

이 중 5개 증상이 연속 2주 동안 지속되었을 경우,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연결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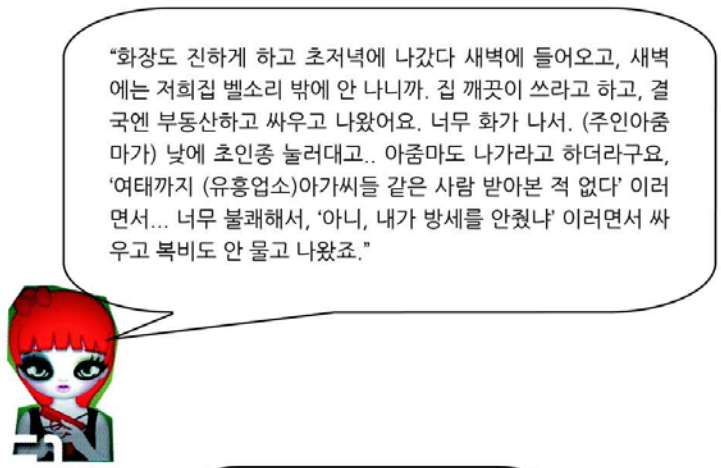
마음이 힘들어서 끙끙 앓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언니들
모두 모두~~~
심리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심리상담가를 연결해드립니다.

010.8230.6279로 연락하시거나
문자 남겨주세요.

차별을 말하다!

당신과 나의 차별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데도 없어서 답답하고 짜증난다. 그런데 이것이 차별이라면? 게다가 법에서 그 차별을 '금지한다' 라면?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업주, 손님, 경찰, 병원, 택시,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차별들이 일어난다. 직접적 불이익을 받는 상황부터 비웃음이나 농담, 경멸의 형태로서의 차별까지. 그냥 이렇게 참아야 하나?



차별이 뭐지? 〈직접차별〉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 유형 중 하나인 '**직접 차별**'은 **의도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해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며,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 이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괴롭힘…

차별금지법에서는 '**괴롭힘**' 또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억울하다는 느낌,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은 차별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차별적 인식에 근거한 혐오나 증오의 표현을 언론, 방송, 집회에서 표시하거나 조장, 광고하는 것 또한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괴롭힘이란?

'인간적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
성적 언동 등으로 불쾌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차별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되며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 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

동성커플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이주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와 모욕을 받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가방끈 짧다고 서러울 일 없고, 여자라서 차별받지 않으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어도 이민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말이다.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금방 세상이 좋아지긴 어려운 일. 법은 한정적이고 좁게 해석되는 일이 많고, 당장 닥친 나의 일상과는 멀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차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대응 전략에 하나 더 힐 수도 있고, '비빌 언덕'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이건 차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과정" 중에 있다. 차별적으로 대우받으려는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반대하기도 한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반쪽 짜리 차별금지법이 되지 않기 위해, 진정 모두를 위한 평등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꿈꾸고 싸우고 있다.

[용]

[참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길라잡이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성판매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룸

여성인권영화제(Film festival for Women's rights)

여성인권영화제 피움(fiwom)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2006년에 시작된 영화제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폭력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점을 다루는 국내외 영화들과 함께 자신의 삶과 인권을 찾아가는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활짝 피어날 것이다.

기간 : 2011년 10월 6일~9일
장소 : 씨네코드 선재(종로)

용감한 여성들

잡년들의 행진 〈슬럿워크〉

캐나다에서 시작한 '슬럿워크(SlutWalk)'가 점차 전세계적으로 100여 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슬럿워크는 2011년 1월 캐나다 요크 대학에서 열린 안전포럼에서 한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여성들이 슬럿(Slut, 헤픈 여자, 매춘부 등을 뜻하는 속어)처럼 입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반발해 시작됐다. 그 다음달 성폭행 사건 담당 판사가 '피해자의 옷차림이 피고에게 잘못된 인상을 줬다'며 피고에게 벌금형만을 선고한 것이 이 여성운동을 폭발시켰다. 이 운동은 '슬럿처럼 입을 권리'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발전, 전세계 여성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 30여 곳에서 진행됐다. 지난 6월 11일 런던에서 열린 집회에는 여성 5천여 명이 참가했다. 오는 25일 인도 델리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도 지지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남성들도 시위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인권운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슬럿워크:'여성들이 자유롭게 옷 입을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운동-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2011년 06월 16일)

한국에서도 대대적인 슬럿워크 계획이 있고 이미 몇몇 '슬럿 1인 시위'가 있었다.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 3명이 지난 1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는 11일째 계속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문 앞에서 열린 11번째 1인 시위에는 한 여성이 '슬럿워크(Slut Walk)'운동 차원에서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참여했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1인 시위에서 이 여성은 "성폭행(성추행)해도 되는 여성은 '당근' 없습니다. 가해자들 살리자고 피해자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씌울 건가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성추행 학생 출교 요구 '슬럿워크' 1인 시위 -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22일)

▲ 한국판 '슬럿워크' ©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너희들, 껴어!!!

▲ 호주 시드니 도심서 '슬럿워크' 행사 열려(2011. 6. 13) © 연합뉴스

폭력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해도 되고 누구에게는 하면 안 되고, 누구에게는 미안하고 누구에게는 당해도 싼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뭘까. 성폭력 경험을 한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라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닐까? 피해자의 옷차림에 노출이 심하면 가해자의 행위는 성폭력이 아닐까? 집결지에서 일하거나 술집에서 일하다가 2차를 나가는 여성들은 성폭력이나 폭행 등 어떤 봉변을 당해도 그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사건들 속에는 성폭력 가해자가 있고 피해 생존자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사회적·성적 낙인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 또한 공통되다. 노래방 도우미였거나 헐벗듯이 옷을 입거나 성판매 하거나 하는 '여성'들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들의 핵심은 원치 않는 관계를 요구한 가해자들의 성폭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생존자 여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꼴이다. "원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헤프게 하고 다니면 안 되지"하면서 성폭력을 마치 여성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벌인양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헤프다는 건 무엇이며 헤프다는 말은 왜 여성들에게만 쓰는 걸까. '물건이나 행동을 남발하다'는 뜻의 "헤프다"에 여성이 결합된, "헤픈 여자"라는 말은 '성적 방종을 일삼는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성은 성적으로 방종하면 안 된다'는 굳은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여성의 몸을 마음껏 누리려 하는 가부장적 남성들은 모든 여성들이 자기를 위해 다리 벌려 주길 바라면서도, 정작 자신은 성스럽고 고결한 여성들만 사람 취급해 온 역사는 오래 되었다. 그들에게 여성은 '창녀' 아니면 '성녀'로 나뉠 뿐이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요구나 표현하는 방법도 극히 빈곤할 수밖에 없다. 다소곳하게 입어라. 왜 그리 헤프게 웃냐. 현모양처가 되어라. 밤에는 요부가 되어라. **이게 뭥미?**

스스로에게 헤프던 말던 그게 무슨 상관이람. 누가 너랑 하고 싶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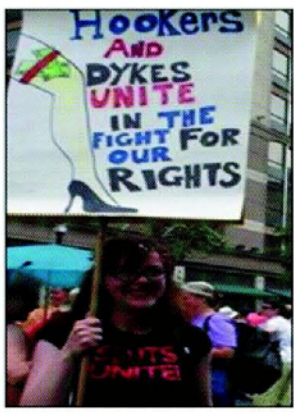
특정한 성별에게 헤프다 아니다를 말하는 건 어떤 성별의 언어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여성이 어떤 모습이나 행위를 했건 무슨 일을 하건, 누구하고나 성관계 할 마음이 있다고 남성들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처벌인 양 그녀들을 손가락질 할 정당성은 없다. 여성들에게 그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거니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너'에게 성폭력 당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누구는 거친 옷을 좋아하고 누구는 투명한 옷을 좋아하고 누구는 따뜻한 옷을 좋아할 수 있다. 누구는 성매매를 하고 있고 노래방 도우미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너와 성관계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성폭력을 당하고 싶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열 받고 화가 나면 울었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다. 당신은 이들을 보고 미친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건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내용은 듣지도 않은 채, 그녀들이 거리로 나왔다는 사실을 뜨악해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숨, @bleuthink]

해외단신!

로스쿨에 다니며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외치는 〈웬디 뱁칵〉



2003년 10월 13일 캐나다, 웬디 뱁칵의 절친한 동료 성매매 여성이 손님에게 살해됐다.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 제목에서 동료 여성은 단지 '죽은 창녀(dead hooker)'였다.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창녀 하나'가 죽었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이 일을 계기로 성매매의 위험성과 사회의 편견을 깨닫고 홉리스와 성매매 여성을 돕는 단체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웬디는 로스쿨에 진학했다. "상담원 일을 6년째 해오고 있다. 성매매 여성과 마약중독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상담하는 일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 마약중독자의 재활치료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으로부터 폭행 등 위협을 당할 때 경찰에 불법성매매에 대한 기소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거리의 성매매여성, 로스쿨에 가다-오마이뉴스, 2010년 1월 6일)

[숨, @bleuthink]

◀성매매여성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웬디. © 웬디 뱁칵

빚 권하는 세상, 유흥업소

"성매매를 조건으로 지급된 선불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유흥업소 여종업원에 대여금소송 청구한 업주 패소

수영(가명)씨는 5-6년 전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생긴 빚 때문에 지난 3년간 법정 소송에 휘말려 있었다. 2008년 수영(가명)씨는 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 받은 바 있다. 당시 수영(가명)씨에게 있었던 재판부의 판결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반 채권채무관계로만 수용하여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소 도움을 받을 권리나 이 특수한 채권에 대해 방어할 수단이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 업주는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소송을 청구해 다시 한번 수영씨를 곤경에 빠뜨렸는데, 당시 수영씨는 업주가 청구한 소송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아무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업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성매매를 조건으로 지급된 선불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다 수영씨는 2010년 성매매피해 지원상담소[이룸]과 함께 업주가 청구한 대여금소송 1심판결에 대응해 항소를 진행하게 된다. 당시 수영씨는 임신 상태에서 매우 힘들게 소송 준비를 하였고, 몇 년 동안 법적 소송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업주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업주는 여성이 사기죄로 처벌되었던 전적을 증거로 들이밀며 변론에 나섰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까지 무시하며 기나긴 싸움을 계속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재판부는 "선불금은 여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또는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중략…) 무효인 채권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수영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4년간의 힘들고 지난했던 싸움이 끝났다.

유흥업소 업주들의 무모한 민사소송,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유흥업소,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고액의 선불금을 여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 재판부가 판결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유흥업소에 취업할 때 업주들이 제공하는 선불금은 성매매업으로의 유인,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업주들은 고액의 선불금을 주면서도 성매매를 통해 대부분의 영업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성매매방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채무관계의 무효' 조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를 통해 성매매를 그만둔 여성에게까지 유흥업소로의 복귀를 종용하고 다시 성매매업에 종사하도록 유인하여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챙기고자 한다. 이러한 업주들의 민.형사상 소송은 과거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여성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스스로 대응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특별히 이번 판결이 의미 있는 이유는, 여성이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와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성매매 사실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도, 당사자의 진술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사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업주와의 위력관계에서 벗어난 탈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피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성매매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며, 이를 판결에 적용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절실하다.

[쌀]

"채무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불법" 채권추심 선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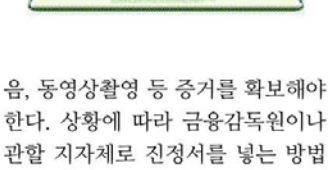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겪는 협박 중에 하나는 사채업자의 불법 부당한 채무독촉이다. 유흥업소 업주나 업소와 관련된 사채업자들은 흔히 종사자들이 빚을 지고 있다는 이유로 "2차를 나가라"고 강요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거나 "아는 사람에게 대신 받겠다" 또는 "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채무가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고, 괴롭더라도 합법적인 빚독촉을 감내해야 하지만,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채무는 대부분 "2차(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이어서 무효에 해당하는 빚이고, 때론 부당한 빚에 대한 독촉까지 감당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사채업자나 업주들의 불법 부당한 빚독촉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당하게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채권추심은 범죄행위이다!

[불법채권추심의 종류]

·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당사자 외에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는 사람(가족, 동료)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변제를 이유로 성매매 업소에서 계속 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알선·강요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소위 '거짓말 채권추심'
· 채무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는 행위, 개인정보 누설 금지
· 결혼, 장례와 같이 채권추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가 연락두절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행위

위와 같은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특히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자 당사자나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할 경우,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는 관할검찰청,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화 내용의 녹음, 동영상촬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지자체로 진정서를 넣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할 곳

전화 112 또는 1379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사금융관련 상담 1332 (http://www.fss.or.kr)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02.953.6279

[쌀]

퀴어문화축제(Korea Queer Culture Festival)

2011년 5월 28일, 종로 한빛미디어파크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자신들의 목소리와 자긍심을 드높이는 날. 여기저기 무지개(성소수자의 상징)가 걸리고 '내가 퀴어요!' 종로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날. 퀴어문화축제가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축제 현장에는 여러 관련 단체들이 화려하게 부스를 꾸며놓고 홍보와 기념품들을 파는 가운데 다양한 축하공연들이 이어졌다. 청계천 길을 따라 행진을 하는 퍼레이드에서 참여자들은 신나게 춤을 추고 소리도 지르며 지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이날 퀴어문화축제에는 약 1,500명의 참여자가 함께 했다고 한다. [용]

*퀴어(Queer)?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을 말함.

3면. 성매매방지법 정답과 결과 Point!

정답:
1. **그렇다.** 제14조(의료비의 지원)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해요.
2. **그렇다.** (신뢰있는자의 동석)경찰이나 검찰조사시 상담원이 같이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어요.
3. **아니다.** 안타깝게도 성매매방지법에는 사채업자의 채권추심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어요. 하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불법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어서 위반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4. **그렇다.** 제8조(지원시설의 입소 등)전국에 있는 쉼터에서 직업훈련/의료지원/법률지원을 받으며 최장 1년6개월 동안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5. **그렇다.**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상담이나 지원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되고, 상담과 지원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6. **아니다.**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그렇다.**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필요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검정고시나 기타 자격증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이 가능해요.
8. **아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법에 호소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9. **아니다.**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10. **아니다.** 제18조~21조(벌칙)성 구매, 알선, 판매자 모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입장에 있는 성판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꼭 필요하겠죠!

맞힌 개수 1~2 : 들어는 봤는데 나랑 상관없어 잘 모르는 법, 아리까리 하네.
3~5 : 시작이 반인데 필요할 때 써먹을 수는 있겠어. 흠흠
6~10 : 와우! 나 뭔가 법 좀 아는데, 비빌언덕으로 써먹어야지!

[만든 이: 깡]